

신년사

시련을 통해 얻게 된 값진 교훈



하나님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좇아 살려고 애쓰는 자를 위해 무궁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십니다.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고 2011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언제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 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타가 위로 날을 같으니라"(욘5:7) 하였습니니다. 지구상에 전쟁과 천지자연이 없었던 해가 없었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지 아니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고난이지만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겪게 되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대통령 된 이후로 우리 교단총회나 총회원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피상적으로 밀어 닦았습니다. 세 번에 걸친 이태원사건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소득은 그 이상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보다 그런 일을 통해 얻게 된 신령한 교훈들이 더 값지고 큼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겨울과 경계가 되었습니다.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웃음을 여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타인을 기만하며 허위장설을 퍼뜨려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행하면서 두려움이나 수치 느끼는 커녕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만족해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사나 요구나 가르침을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은 아예 없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였던 이를 말하는 것은 금기 사항으로 여기며, 이를 발설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기괴명측한 행태를 목도했습니다.

교역자의 도덕적 타락은 바른 교리와 신앙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이 탐심과 야욕을 가지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상대를 속이며 자기 이득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에게 이용당할 리 만무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겠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좇아 살려고 애쓰는 자를 위해 무궁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하려면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甘受)해야 합니다.

권모 술수를 쓰고 기만 배신행위를 해도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면 선이 되고 의가 된다는 성공철

학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외적 규모가 크고 화려하면 다 좋고 아름답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내려야 합니다. 사물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본질로서 결정되어 집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되게 행하여 얻거나 이룬 것은 추악한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위대는 사탄의 위대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란 세력의 우열이나 물량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혹과 위협과 곤란을 극복하고 고난과 손실을 감내하며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참된 승리와 성공입니다. 이것이 성직자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직자의 신앙과 양식을 벗어난 행위에 기댈만한 의사는 추호도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들의 위험을 당해 내기에 억부족 하여 운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서로 교통하며 함께 어울려 협력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단 총회와 총회원이 하나님께 인정 받기를 소원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총회원 여러분의 생애에 기념할만한 201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1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신년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길



2011년에도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망차고 복된 2011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크신 은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본 교단과 본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은 아이티 지진과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등 국제적으로는 큰 재난의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은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잇달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아픔 중에도, 김연아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거머쥐는 감격적인 시간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2위를 하여 아시아를 놀라게 하는 마음 베푼 시간도 있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시라

이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겠나니라"(전7:14)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기쁜 날과 곤고한 날을 겪게 하심으로 인간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가 한창게 찾아 올랐지만, 올 한해에도 어떤 사건과 사고, 그리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간, 순간 감시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2011년에도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성령 충만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때마다, 시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1년 1월 1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교단·국내총회장 김상용 목사

신년사

"하나되어 새로운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



대나무가 곧게 자라는 것은 대나무가 매듭을 지어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의 매듭 매듭이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곧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우리 인생들이 곧게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매듭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매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한달, 일년의 매듭을 통해 우리들은 반성을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인 매듭으로 또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적 매듭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매듭입니다. 주어진 시간적 매듭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 보낸다면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끊어진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 보는 회개의 시간들과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들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성회 교단에 소중한 교단 통합의 매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아름답지 못한 구습이나 전통 그리고 인간관계에 매여서 분명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행보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매듭을 분명히 하며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통합의 아름다운 정신을 지켜 온 우리는 2011년을 새로운 매듭으로 받아서 분명한 청신과 새로운 내일을 향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내다보는 해인이 열리지 못해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이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 과거에 매인 모든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참신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새로운 교단으로 거듭납시다. 2010년을 지혜롭게 매듭짓고 2011년의 새로운 매듭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아름답게 이어나갑시다.

2011년 1월 1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국제총회장 배진기 목사

포토뉴스

2011년도 12월 교단 임원회가 구랍 20일 경기북파주지방회 순복음당은 빛교회(담임 양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경기북파주지방회 초청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임원회를 마치고 총회 임원들은 경기북파주지방회의 웅숭한 오찬대접을 받았으며 교단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했다. 경기북파주지방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통합)

2011년도 시무예배 및 제59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2011년도 시무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3. 본 교단 제59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시 : 2011년 1월 6일(목) 13시(낮 12시 식사) - 1부 시무예배, 2부 실행위원회
- 2) 장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TEL. 02-2675-5181~3)
- 3) 참석범위 : 정책위원,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전 실행위원(총회 임원, 상임운영위원, 지방회장, 기관장 - 교단자문위원장)

2010년 12월 4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THE ASSEMBLIES OF GOD, KOREA
대표총회장 목사 조용목 교단국총회장 목사 김상용
국제총회장 목사 배진기 부총회장 장로 이상철
총무 목사 김홍성 서기 목사 윤기석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 : 02)2675-5181~3 FAX : 02)2675-9839 email : aogk@aogk.org